

## 한국, 지재권 분야 주도국으로 부상

- WIPO, 한국을 지재권 행정의 모델국가로 인정 -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2002. 9.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7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하여

○ 한국 특허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특허전산망 개발 및 중소기업 지재권 진흥정책 개발에 있어서 WIPO와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가국(179개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 한국 특허청은 작년 11월 WIPO가 한국이 개도국 특허청의 Role Model(역할모델)이 되어 줄 것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WIPO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개도국 지원사업을 준비해 왔다.

□ 한편, 이날 특허청장은 WIPO 사무총장(Kamil Idris)과 단독회담을 갖고

○ 한국 특허청을 모델로, 개도국 지재권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이드리스(Idris) 사무총장은 한국특허청의 발명진흥사업, 전자출원 시스템, 중소기업지원정책 등은 WIPO 회원국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개도국 지재권 행정의 Role Model을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국의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

고 있다.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만 해도 2000년 한해 총 35만여건이 출원되어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출원대국으로 성장하였다.

○ 과학기술의 개발지표(index)인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만을 본다면 2000년 한해 총 73,378건이 출원되어 세계 제4위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건수의 면에서는 한국은 16건을 출원하여 일본의 31건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특허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 WIPO는 이처럼 한국의 지재권 출원규모가 커진 배경에 주목하고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서울대 경제연구소를 통해 “한국에서의 특허제도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Korean Study를 수행한바 있다.

○ 한국 특허청과 WIPO는 동 Korean Study 결과를 바탕으로 개도국 특허청을 위한 지식재산권 진흥정책 전파 사업 및 특허청 전산화 지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한국 특허청을 모델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특허청의 대개도국 지원사업은 한국 특허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크게 상승시켜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획득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특허청은 작년 11월과 금년 7월 필리핀, 베트남 특허청과 각각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국제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특허청은 앞으로 지재권 분야에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활용하여 아시아지역의 특허심사를 주도하고

-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우리 특허권을 기초로 무심사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캐나다특허청,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

- 캐나다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새로 지정된다.
- 2002. 9.25 밤 8시에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PCT 기술협력위원회는 캐나다 특허청을 11번째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키로 의결하였다. PCT 국제조사기관이 되면 지정국가의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 및 특허성 여부에 관한 예비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1997년 세계 10번째로 PCT ISA 및 IPEA 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후 우리나라의 PCT 국제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말 현재 2,318건으로 재작년의 11위에서 3단계 쯤 8위를 랭크한 바 있다.
- 캐나다는 지난해말 PCT 국제특허출원건수가 2,030건으로 우리 뒤를 이어 세계9위를 기록

하고 있다.

- 한편 캐나다와 함께 PCT ISA 및 IPEA 지정신청을 냈던 핀란드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을 맞보았다.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유럽특허청이 유럽 국가들을 위한 국제조사기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내 국제조사기관 추가지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석된다.
- PCT 는 각국의 기업과 발명가들의 해외 특허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1970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자기 나라 특허청에 자국어로 출원하면서 특허취득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같은 날 지정국가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현재 116개국이 가입해 있다.

##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 내년 재선출 확실시

- 9. 23부터 열렸던 WIPO 총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유럽 등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과 일부 선진국이 현 사무총장의 재선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KAMIL IDRIS 카밀 이드리스(수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현 사무총장이 내년 3월에 있을 사무총장 선거에서 재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 23일부터 25일까지 연속된 회의에서 179개 WIPO 회원국중 절대다수인 153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하였고 미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이번 회의가 사무총장 선출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하였으나 반대는 없었다.

○ WIPO 사무총장은 WIPO 조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WIPO 총회에서 정식 승인하는데 차기 조정위원회는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이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6년으로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사무총장의 임기는 내년 11. 30까지라고 주 제네바 한국대 표부 안재현 특허관은 밝혔다.

## 한·터키 특허협력추진

- 양국국민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공동 협력 키로 -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2002. 9. 27.(금) 터키 앙카라에서 세림 센군(Selim Sengun) 터키 특허청장과 한·터키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 최근 한·터키간 교류협력의 증가에 따른 특허, 상표, 의장 등 지식재산권의 상호보호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 양국국민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지재권침해 단속, 국제특허심사, 전산화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의 상승으로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였다.
- 최근 터키 현지인에 의해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 선등록 되는 등 지재권 침해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의 터키내 지재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 우리말 상표, 다시 생각해 본다

- 제 556돌 한글날을 맞아 특허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상표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말 상표보다는 외국어 상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를 분석한 결과

순수 우리말 상표가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특히, 의약품(8.9%), 화장품(5.7%), 의

류(3.6%), 전기·전자제품(3.2%)에서 10%미만의 낮은 비중을 보였음

□ 이처럼 우리말 상표의 사용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 화장품·패션의류 분야에서는 외국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심리를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외국어 상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의약품에서는 제품의 특성상 의약품의 성분과 효능을 나타내는 외국어를 표기하는 상표가 많았고,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도 제품의 기능이나 첨단 기술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외국어 상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하여, 요식업(43.4%), 식료품(41.1%), 의류서비스 및 미용업(37.9%), 과자류(34.1%) 등에서는 우리말 상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식품류에서는 ‘해찬들’, ‘폴무원’, ‘참그루’, ‘옹가네’, ‘산내들’ 등의 우리말 상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 이는 식료품의 특성상 신토불이와 싱싱한 자연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음료의 경우 ‘뿌서뿌서’, ‘뿌요뿌요’, ‘짱구’, ‘오잉’ 등 재미있고 어린이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말 상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 생활용품에서도 ‘숲속여행’ (방향제), ‘물먹는 하마’ (습기제거제), ‘고운손’ (주방세제), ‘한올’ (섬유유연제), ‘한방울’ (주방세제) 등 제품의 기능과 경제성을 강조한 우리말 상표등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외국어 상표가 전체상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순수한 우리말을 이용한 상표가 일상소비생활과 밀접한 상품에서부터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 이는 외국어 상표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말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더 참신하고 친숙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 우리말 상표가 외국어 상표보다 더 정확하게 상품의 기능과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

□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 “한솔”(큰 소나무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 “바찌”(匠人이란 뜻의 순수 우리말 ‘바치’에서 따온 말) 등은 우리말 상표가 가진 언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말 상표로도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음
- 이와 같이, 외국어 상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정서에 부합하면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우리말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물 수명연장 유전자 발견

국내 산·학 공동연구진이 식물 수명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냈다.

이유전자를 활성화시켰을때 식물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돼 화훼산업 등에 적용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제노마인(www.genomine.com 대표 박유신)은 “포항공대 남홍길.임평옥교수팀과 함께 애기장대(아라비도시스)에서 수명 관련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를 ‘ORE’로 이름붙여 국내외에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5개 염색체를 지닌 애기장대는 크기가 작고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기본 물질대사 과정이 다른 식물들과 유사해 식물 유전자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연구진은 애기장대의 유전자에 표지를 붙인 인핸서(유전자 활성을 높여주는 DNA 조각)를 무작위로 삽입해 다양한 변이체들을 만든 다음, 성장한 개체들 가운데 잎의 황화(누렇게 변함) 속도가 느린 것을 골라냈다. 이어 황화 속도가 느린 애기장대의 유전자를 분석, 인핸서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알아낸 뒤 해당 유전자를 재차 활성화하거나 녹아웃(제거)해 수명에 관여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실험 결과 야생 애기장대는 발아 후 40

일 뒤 광합성 활성과 엽록소함량이 완전히 사라졌으나, ORE유전자의 활성을 높인 것은 발아 40일뒤 100% 광합성 활성과 78%의 엽록소 함량을 나타내는 등 수명이 크게 증가했다고 제노마인은 설명했다. 제노마인은 특히 애기장대의 꽃과 잎을 꺾은 뒤에도 수명이 연장되는것을 확인함에 따라 다른 식물에서 이 유전자의 활성을 높이거나 애기장대의 ORE유전자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형질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밝혀낸 유전자는 5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으며 1341개 염기쌍으로 이뤄져 있다. 애기장대의 유전체(지놈) 크기는 1억2500만 염기쌍이다. 박유신 제노마인 사장은 “ORE유전자와 그 단백질은 식물 노화메커니즘 연구, 노화 관련 유전자, 노화 억제 물질 탐색 연구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며 “우선 화훼류를 대상으로 꽃과 잎이 피어있는 기간과 저장기간을 연장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기장대가 지닌 유전자는 다른 대부분 식물체도 갖고 있어 애기장대를 통해 확보한 연구성과는 다양한 식물체의 유전자 기능규명, 형질전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 특허심사기간 너무 길어

우리나라는 작년에 국내외에 29만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세계 5위를 했고 국제특허건수 비교의 주요지표인 PCT출원에서도 세계 8위를 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증가율이 지난 4년간 연평균

69.4%나 돼 세계 1위를 했다.

그런데 신속, 정확이 생명인 특허의 심사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길다.

특허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프랑스 8개월, 독

일 10개월, 미국 13.6개월인데 반해 우리는 21.3 개월이나 걸린다.

다가오는 2005년에는 32개월로 늘어날 거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은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즉 심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심사관 1

명당 연간 특허심사 건수가 미국 70건, 유럽연합 59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3건이나 된다.

만약 특허심사관을 증원하지 않는다면 특허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장벽이 될 것이 뻔하다.

하루빨리 특허심사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출처 매일신문

## 발명, 특허출원 여성도 기회 많아

“이제는 여성도 발명과 특허 출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 고학력자들이 많아진 만큼 고도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생활전반에 걸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인의 권리로 구체화시키고 사업화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구시와 특허청 주최로 대구문예회관에서 열린 ‘대구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황소현 회장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을 합쳐 지난해 여성 출원이 1만1천여건에 달했다”면서 “얼핏 보면 여성과 별 상관없이 있는 것 같지만, 전문발명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장은 특히 여성 벤처기업과 디자인 분야 등 상표권 출원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여성들이 고부가가치 아이디어에 점차 눈을 뜨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여성들이 ‘생활속의 작은 발명’이라는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달리한다면 자녀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자녀가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인력의 잠재능력 발굴과 특허출원 관리 전략, 여성경영인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회장은 “거창한 발명이 아니더라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신문

## “특허기술 73%는 방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국고지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등록된 특허 10개 가운데 7

개는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등록된 특허가운데 사업화 된 비율은 36.6%였지만 금년 4월 현재 사업화 비율은 27%로 4년 사이에 10% 포인트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특허기술 평가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등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국고지원은 지난 98년 7억2천여만원에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21억천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출처 YTN

## WIPO 총회, 특허제도 세계화 논의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를 위한 제 37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총회가 제네바 소재 WIPO본부에서 197개국 특허청장들이 모인 가운데 개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3월 첫 논의가 이뤄진 국제특허제도의 창설을 비롯한 각국 특허법의 세계화 논의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요의제로는 ▲특허실체법 통일화조약,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국가명칭의 조정, ▲특허협력조약 규정의 개정, ▲시청각실연보호를 위한 외교 회의 재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실시되는 차기 WIPO 사무총장 선출절차와 WIPO 조직개편 및 내년도사업예산 승인도 의결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에 관한 각국의 제도나

절차가 복잡해 급증하는 출원량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복심사에 따른 비용증가로 특허제도의 통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이 특허제도 통일화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응선 변리사는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특허보호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영업방법, 재테크관리법에 관한 이견이 좁혀져 이번 총회를 계기로 특허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매일경제

## 에이즈 백신 특허출원 세계 2위

에이즈 백신과 관련해 우리나라 제약회사나 개인 등이 출원한 특허건수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에이즈 백신 관련 내국인 특허는

1992년 1건이 첫 출원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 말까지 8건 등 모두 30건이 출원돼 이 중 7건이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국인 출원건수는 1986년 이후 우리나라

라 특허청에 출원된 총 165건의 관련 특허 중 18.2%이며 67건을 출원한 미국인에 이어 다출원 2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11건으로 공동 3위인 벨기에와 프랑스, 공동

5위인 영국과 독일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YTN

## 우리나라 사이버스쿼팅 심각

도메인 분쟁 조정신청에서 한국인이 피신청인으로 연루된 사건 수가 세계 4위를 차지, 재산적 가치를 노리거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이버 스쿼팅(squatting; 불법점유) 문제가 국내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30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에 접수된 닷컴(.com), 닷넷(.net) 등 최상위 도메인 분쟁 조정 신청 중 우리나라 사람이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사건은 214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각국의 도메인 보유자가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사건 수에서는 미국이 19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392건, 스페인이 255건이었다.

특히 한국인이 WIPO에 직접 도메인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7건에 불과해 두 수치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민이 직접 신청한 사건이 2004건으로 피신청인으로 연루된 사건 수와 비슷하다.

또 영국 385건, 스페인 255건 등으로 역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사건이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도메인 분쟁조정에서 직접 신청한 경우보다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건수가 많은 것은 사이버 스쿼터가 많음을 의미한다”며 “최근 등록이 시작된 닷비즈(.biz) 등에서도 벌써 수십건의 사건에 우리나라 등록자가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WIPO 조사와는 별도로 국내에서는 KRNIC 산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월 4일부터 닷케이아르(.kr) 도메인에 관한 분쟁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 건수는 39건으로 상당수가 유명 상표명을 도메인으로 이용한 경우로 밝혀졌다.

결정된 24건의 사건 중 16건은 상표권자에게 양도해줘야 하는 이전결정이, 6건은 사용권한이 중지되는 말소판결이 내려졌다.

기각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앞서 정보통신부는 새로 마련중인 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에 사이버 스쿼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입법 예고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